

**참고 1****제23회 「KBS119상」 수상자 현황****1 대상 (KBS상패, 1점 상금 1천만원)**

소속	계급	성명	생년월일	비고
전라북도 익산소방서	지방소방장	강현도	1974.02.15.	구조

**2 본상 (KBS상패, 20점 상금 각 3백만원)**

소속	계급	성명	생년월일	비고
중앙119구조본부 영남119특수구조대	소방교	이영민	1983.03.27.	구조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지방소방장	강일식	1972.11.21.	구조
서울특별시 강동소방서	지방소방장	신미애	1976.05.05.	구급
대구광역시 강서소방서	지방소방장	심진섭	1970.11.24.	구급
인천광역시 계양소방서	지방소방장	박철은	1976.01.08.	구급
광주광역시 동부소방서	지방소방장	정범준	1976.12.13.	구급
대전광역시 북부소방서	지방소방장	김호영	1978.11.28.	구급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특수화학구조대	지방소방장	김신규	1975.07.20.	구조
경기도 부천소방서	지방소방교	구민회	1984.07.11.	구조
경기도 수원소방서	지방소방장	신영곤	1978.01.07.	구급
경기도 남양주소방서	지방소방장	강동규	1972.01.18.	구조

소속	계급	성명	생년월일	비고
강원도 춘천소방서	지방소방장	이상근	1972.08.18.	구조
충청북도 청주서부소방서	지방소방장	박지영	1978.10.31.	구급
충청남도 부여소방서	지방소방장	이정행	1976.04.27.	구급
전라남도 광양소방서	지방소방장	양달승	1975.03.19.	구조
경상북도 안동소방서	지방소방장	권기원	1979.02.20.	구조
경상남도 양산소방서	지방소방장	황성욱	1974.01.25.	구급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소방서	지방소방장	김미애	1979.01.29.	구급
창원시 창원소방서	지방소방교	송동훈	1984.09.15.	구조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소방서	지방소방장	신경화	1976.10.17.	구급

### 3 봉사상 (소방청장상, 1점 상금 3백만원)

소속	성명	비고
제천스카이	이양섭	제천 복합건물 화재 당시 고소작업차 인명구조

### 4 공로상 (소방청장상, 1점 상금 3백만원)

소속	성명	비고
싱가포르시민방위청 (제2방면본부장)	Alan Toh	해외긴급구호대(KDRT) UN INSARAG Heavy 등급 획득 기여

### 5 특별상 (DB손해보험사장상, 2점 상금 각 3백만원)

소속	성명	비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재중의원실	윤위	소방장비관리법 제정 기여
강원도	평창소방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여

## 1 전북 익산소방서 강현도(대상 수상자)

**“119구조구급대원의 최고의 영예 익산소방서 강현도 대원 대상 수상”**

- 전북 익산소방서에 근무하는 지방소방장 강현도(45) 대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구급활동에 헌신적인 임무수행으로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 받는 ‘제23회 KBS119상’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 강현도 대원은 지난 2002년 7월 전북소방에 입문했으며 119구조대에 근무하는 동안 어느 누구 보다도 열정적인 현장 활동으로 1,269건의 화재, 구조 현장에 출동해 1,718명을 인명을 구조했다.
- 특히, '16년 7월 익산국민생활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요구조자를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소생시켰다. '16년 9월 익산시 금마면 한울아파트 화재 때 불길 속을 뚫고 쓰러져 있는 요구조자를 발견하고 구조 후 심폐소생술로 소생시켜으며, 구조대원으로써는 전국 최초로 하트세이버 2개를 인증 받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구조 활동에 큰 역할을 했다.
- 또한 강 대원은 전북 최초 인명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 하였을 뿐 아니라, 사랑의 헌혈을 50회 이상 실시해 헌혈유공 금장을 수상하였다. '12년부터 현재까지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한 지역 사회 청소년 진로 체험 프로그램에서 직업 전문인 멘토로 지역 청소년의 올바른 진로 의식 향상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참여하고 있다.
- 강현도 대원은 “더욱 열심히 하라는 상으로 알고 전북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2 중앙119구조본부 영남119특수구조대 이영민

###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세계 어느 구조대도 할 수 없다.”

- 이영민 대원은 지난 2009년 11월 소방에 입문한 이래 소방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2,000여건의 화재, 구조, 구급현장에 출동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했다.
- 특히 항공구조대원으로서 산악사고 인명구조 및 울릉도, 백령도 등 섬지역 응급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번근무 중 빌딩화재를 발견, 초기 진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에도 기여하였다.
- 또한 국가적인 재난이었던 포항지진, 밀양병원 화재 등에 소방헬기를 타고 긴급 출동하여 노약자를 구조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근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 이영민 대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라는 상으로 알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3 서울 119특수구조단 강일식

### “한강의 수난구조는 내게 맡겨라도사”

- 강일식 대원은 18년 7개월동안 각종 화재·구조·구급출동 현장에서 헌신적인 구조활동을 펼친 공로가 인정됐다
- 특히, 13년 4개월 동안 수난구조대원으로 활약하여 최근 5년간 590여건의 수난사고 현장에 출동, 440여명의 소중한 인명을 구조하여 우수 구조대원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번 일에도 홀몸 어르신, 장애인 세대 등에 도시락배달, 목욕봉사 등 쉬는 날 없이 헌신해오며 타의 모범이 되는 대원이다.
- 강일식 대원은 “재난 현장에서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해 준 동료들 덕분에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됐다” 며 “늘 감사한 마음과 구조대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시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 4 서울 강동소방서 신미애

### “생명을 살리는 수호천사”

- 신미애 소방장은 18년 7개월 동안 화재 등 각종 구급현장에 3,000여회 출동해 긴급상황에 적절한 응급처치후 병원으로 이송시킨 베테랑 구급대원이다.
- 특히, 심정지, 당뇨로 인한 쇼크, 교통사고 등 위급한 환자를 만났을 때 신속한 상황판단과 응급처치로 수 많은 시민들의 생명을 살렸으며, 이러한 활동으로 심정지 환자 소생시 수여되는 하트세이버를 10회 수여받았으며, 우수 구급대원으로 선정되어 장관표창 1회, 청장표창 1회, 서울특별시장 표창 3회를 수상하기도 했다.
- 또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해 축제현장,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전문강사로 시민 응급처치 교육활동을 실시 했으며, 홀로사시는 어르신, 장애인에 대한 시민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등 다방면에 걸쳐 왕성한 활동을 했다.

## 5 인천 계양소방서 박철은

### “구급대원 폭행방지 전도사”

- 박철은 대원은 2002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구급대원으로서 각종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 왔다.
- 특히 하트세이버 4회(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소생시킨 구급대원이나 일반인에게 주어지는 인증서) 수여로 재난현장 구급활동 전문가로 활동하였다. 심폐소생술 강사활동 등으로 심폐소생술의 보급 및 확산에 노력했다. 또한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한 언론 홍보 활동 등에도 노력하고 있다.
- 박철은 대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지금도 구급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료 구급대원들 덕분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것 같다” 며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노력하는 119구급대원이 되겠다” 고 말했다.

## 6 광주 동부소방서 정범준

### “인명소생·구급교육 등 전문가, 봉사활동 등 펼쳐”

- 정범준 대원은 지난 2003년 9월 소방에 입문해 구급대원으로 14년을 근무하면서 각종 구급현장과 직무에서 인명구조, 전문능력 향상, 사회봉사 등 헌신적인 소방 활동을 펼친 점을 인정받았다.
- 특히,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구급대원에게 주어지는 하트세이버상 5회 수상과 각종 연구 T/F팀 참여, 석사학위·자격 취득 및 대학 강의 등 구급대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방안전 확산과 후배 양성에 노력하는 등 구급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했다.
- 또한 10여년 간 소외계층에 연탄 기부, 결식아동 후원 등 나눔 실천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 정범준 대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누군가에게 보여줄 만큼도 아니고 부족한 점이 많은데 현장에서 함께 뛰 동료들 덕분에 상을 받게 됐다”며 “소방공무원의 자부심을 갖고 쓰러져가는 시민 한 사람의 생명도 무사히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7 대전 북부소방서 김호준

### “메르스도 물리친 시민생명 안전지킴이.”

- 김호영 대원은 2007년 대전시 구급분야 소방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되어 각종 구급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판단과 적절한 응급 처치로 대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섰다.
- 특히 2012년 대전 관내 고등학교에서 17세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인명을 소생시켰으며,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방지를 위해 대전 최초 메르스 전담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등 시민의 귀중한 생명 보호에 이바지한 공로가 뛰어 났다는 평을 받았다.
- 김호영 대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동료 대원들이 있었기에 이런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구급대원으로서의 사명감을 잃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 8 울산 특수화학구조대 김신규

###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는 내게 맡겨라”

- 김신규 대원은 15년 동안 특수화학구조대에서 유해물질 사고 등 재난 일선 현장에서 울산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왔다. 특히 16년 태풍 “차비” 집중호우에 태화강 주차장 수목위에 고립된 남성에게 로프를 이용 도하하여 직접 구조하는 등 최근 3년간 727건의 구조 활동을 펼쳤다.
- 특히, 김 소방장은 전문구조대원으로 현장대응에 필요한 인명구조사, 응급구조사, 화재진화사, 소방설비기사 등 총 22종의 자격을 취득한 멀티 소방관으로, 구조기술 연구와 유해화학물질 강사로 활동 하고 있다..
- 김신규 대원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으로서 당연한 임무를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의 부름에 귀 기울이는 믿음직한 소방관으로 거듭 나겠다"고 다짐했다.

## 9 경기 수원소방서 신영곤

### “심정지 환자 소생을 달인”

- 수원소방서 신영곤 지방소방장은 2004년 소방에 입문해 14년간 구급 대원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재난현장에서 시민의 생명보호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베테랑 구급대원이다.
- 특히 임용 이래 구급관련 현장대응 능력 향상에 꾸준히 노력했고, 소방기술경연대회 응급처치 최우수상 수상 및 심정지 환자를 소생 시켜 총 4회의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받았다. 또한 병원전단계 응급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수원소방서에서 전국최초로 시행한 ‘구급 대원 현장 심폐소생술 ALS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소방 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 10 경기 부천소방서 구민회

### “구조도 최고!, 봉사활동 최고!”

- 부천소방서 구민회 소방교는 2009년 소방에 입문해 구조대원으로 최일선에서 인명구조에 앞장섰으며, 스킨스쿠버 수중정화활동 및 난치병 어린이 돕기 대회 등에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모범 공무원이다.
- 또한, 소형선박조종사 및 1종 특수트레일러 면허와 스킨스쿠버 강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꾸준한 자기개발을 통해 개인 역량을 발전시키고 있는 우수한 구조대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 11 경기 남양주소방서 강동규

### “경기도의 안전은 바로 내가 지킨다. 살신성인의 귀감”

- 강동규 대원은 지난 2000년 1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18년 넘게 화재진압, 수난구조 등 최일선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며 근무 기간 중 약 15년을 구조대원으로 헌신하여 최근 5년간 화재진압 306건, 구조활동 966건 출동하여 559명의 소중한 인명을 구조하는 성과를 냈다.
- 특히, 지난 2013년 남양주시 빙그레 공장 암모니아 폭발사고, 2015년 남양주시 직접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 2017년 다산 신도시 공사현장 크레인 붕괴 사고 등 대형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진입하여 헌신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펼쳐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다.

- 또한, 비번 날은 경기도소방학교 외래교관 활동, 잠수강사 자격을 활용한 소방공무원 자체 잠수교육 등을 실시하여 수난사고 전문가 양성에도 기여했다.
- 평소 자격증 공부도 열심히 해 인명구조사, 화재진화사, 잠수지도자, 심해잠수 등 업무관련 10개 이상의 각종 자격을 취득하여 전문구조대원으로서의 능력발전에도 힘쓰는 모범적인 구조대원이다.
- 강동규 대원은 이번 119상 수상과 함께 1계급 특진의 영예도 안게 됐으며 “앞으로 시민의 안전 및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 더욱 믿음직한 소방관으로 거듭나겠다.” 고 말했다.

## 12 충북 청주서부소방서 박지영

### “심폐소생술 교육 전도사”

- 박지영 지방소방장은 2001년 7월에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16년 8개월 동안 화재, 구급현장을 비롯한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한 현장판단 및 적절한 응급처치로 2,700여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베테랑 구급대원이다.
- 특히 충북 최초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최초발견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 향상과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하여 교직원 및 학생 등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심폐소생술 보급 확산 및 안전문화 정착과 확립에 기여를 하였고 그 공을 인정받아 생산적 공적문화 유공(심폐소생술 교육부문)으로 인사혁신처장관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 박지영 대원은 “구조·구급대원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상으로 그 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하다” 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질 높은 구급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13 충남 부여소방서 이정행

### “충남 멀티소방관 KBS119상을 품다”

- 이정행 대원은 응급구조사 1급 특채로 임용된 후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린 ‘하트세이버’ 를 5차례나 선정되었고, 2012년 화재 진화사 2급과 인명구조사 2급 자격을 차례로 취득해 부여소방서 멀티소방관 1호로 선정되기도 했다.
- 그 밖에도 화재감식분야 및 위험물, 소방설비, 스킨스쿠버, 수상 인명구조, 소형선박면허 등 지금까지 업무 관련 자격증만 10여 개를 취득했다.
- 또한 2015년부터 부여에 있는 보육원에 정기적인 후원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어 진정한 소방관의 봉사정신을 실천하고 있어 동료 직원들로부터 귀감이 되어 왔다.

## 14 경북 안동소방서 권기원

### “각종 재난현장에는 바로 내가 있다”

- 권기원 대원은 2005년 3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3년간 행정 및 화재진압, 구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최근 4년간 1,475건의 화재와 구조 현장에 출동해 530여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 특히 2017.4.21일에는 안동 영호대교 남단에서 떠내려가고 있던 요구조자에게 입수하여 접근 후 소중한 목숨을 구하였다. 2017.9.29일에는 안동 ○○모텔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객실 내 요구조자 2명을 구조하는 등 각종 인명구조 활동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 또한 인명구조 전문자격,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등 각종 전문자격 취득을 통해 꾸준한 자기개발을 하고 있다.
- 권기원 대원은 “구조대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며, 함께하는 동료들 덕분에 큰 상을 받게 된 것 같다” 며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하라는 상으로 여기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 15 경남 양산소방서 황성욱

### “남극기지 안전파수꾼 황성욱 KBS119상 본상 수상”

- 황성욱 대원은 2005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구급대원으로서 각종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해 왔다.
- 특히, 2014년 11월부터는 1년간 대한민국 남극장보고과학기지 구급대원으로 파견근무하며 남극대륙기지 연구활동에 기여하였으며 2016년에는 심정지환자를 소생시켜 하트세이버를 수상하였고, 소방학교 교관, 소방교육 프로그램개발 경진대회 1위 수상 등 재난현장에서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 황성욱 대원은 “지금도 구급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료 구급대원들 덕분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것 같다” 며 “항상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소방공무원이 되겠다” 고 말했다.

## 16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송동훈

###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앞장”

- 송동훈 대원은 2009년 12월 소방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되어 8년 4개월 동안 구조구급대원으로 근무하면서 550여건의 화재출동, 1,500여건의 구조출동, 600여건의 구급출동을 하며 긴박했던 현장에서 수많은 인명을 구조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섰다. 또한 성실한 근무태도와 직원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성품으로 동료직원들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는 베테랑 대원이다.
- 특히, 2016.5.16일 창원1터널 9중 추돌사고, 2017.8.20일 진해구 STX조선선박 내 폭발사고, 2017.7.3일 내서읍 호계리 코오롱아파트 지하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많은 인명을 구조하였다. 2017.11.2일 창원터널 앞 화물차 폭발 사고현장에서는 화재진압과 인명검색을 실시하여 사망자 3명을 수습하는 등 그야말로 헌신적인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였다.
- 송동훈 대원은 “함께 한 동료들이 현장에서 노력한 공로를 대신해 큰 상을 받게 됐다. 앞으로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노력하는 구조대원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